“冬至, 이젠 대표적인 불교 명절”

동지 팥죽 나눔 등 전통문화 전승 열기 이어져

민속 명절이자 24절기 가운데 밤이 가장 긴 동지.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팥죽을 먹는 등 다양한 풍습이 있었던 동지 문화가 불교의 전통문화로 변모했다. 현대화된 사회에서 잊혀져 가는 전통 풍습을 불교계가 전승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22일 동지를 맞아 전국사찰 및 도심 지역에서 종단협 소속 사찰 133곳이 참여하는 ‘동지 팥죽나눔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종단협 계획에 따르면 이번 문화축제에서 30만명 이상이 팥죽 나눔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특별제작된 한국전통과 올림픽 소개 브로셜도 배포된다. 또 동지문화 중 하나인 이웃돕기와 관련해 모금함을 설치, 모연된 성금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배분할 예정이다. 또 동지 풍습인 양말 나눔도 함께 진행된다.


조계사의 인사동 동지팥죽 나눔 모습. 일반시민들도 활발히 참여하는 행사다.

종단협은 축제 개막행사로 12월 22일 인사동과 종각, 서울시청과 노량진 등에서 동시에 풍물놀이 등 문화공연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신도회(신도회장 이기흥)는 산하 날마다좋은날 주최로 12월 16일 북인사동 마당에서 동지 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행복바라미와 함께하는 작은 설 동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3000명 분의 팥죽 나눔이 진행됐다. 팥죽 배식 외에도 새해 가훈 쓰기, 복조리 만들기, 전통차 시음 등 새해를 맞아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정관계 인사들도 자원봉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또 한국불교 대표 1번지인 서울 조계사(주지 지홍)는 동지를 앞두고 12월 21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동지 헌말 나누기를 비롯해 5000명 분의 팥죽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계사는 12월 20일 동지 기도 입재에 들어가 22일 회향한다.

최종현 조계사 기획차장은 “대표적인 불교 사찰인 만큼 불자들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라며 “우리 전통문화를 불교계가 잇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 절기 중 하나인 동지는 불교와 친숙하다. 매년 사찰에서는 동지불공이 이뤄지며, 팥죽을 부처님께 공양올리고 대중이 함께 나눠먹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액운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 발심과 자비 실현의 의미로 보다 확장되고 있다.

구미래 동방대학원대 교수는 “사찰은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전통 풍습을 그나마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지키는 역할과 동시에 자비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며 “전통 풍습을 전승하는 역할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동지와 불교

동지가 불교와 어떤 관련이 있어 사찰에서 동지법회를 열고 팥죽 공양이나 팥 시루떡을 공양하는 걸까? 불가에서는 동지나 팥죽에 관련한 설화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이 분황사 예불에 참석했는데 여왕을 사모하던 ‘지귀’라는 청년이 여왕을 만나고자 해 예불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 원귀가 돼 서라벌의 사람들을 괴롭혔다. 여왕은 스님들의 의견에 따라 동짓날 팥죽을 문간에 뿌린 후 원귀의 행패가 없어지고 사찰에서는 동지에 팥죽을 먹게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불교계에서는 동짓날 일주일 전부터 대덕 스님 초청 법문 등 동지 불공법회가 열린다. 특히 지난 한해의 잘못을 참회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을 가다듬는 날로 자리 잡고 있다. 사찰에서는 철야 정진 법회를 열기도 한다.

옛날 중국 총림에서는 동재라 하여 사찰 주지스님이나 일반신도가 시주가 돼 동짓날에 대중을 위하여 베푸는 재회를 봉행했다고 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종의 대중공양이다.



이웃위한 8000김치 봉은사서 탄생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2월 9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자비의 김장 나누기 축제를 개최했다. 한파가 몰아친 와중에도 주지 원명 스님과 신도들을 비롯해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자유한국당 이은재 국회의원 등 대중들은 김장 8,000여 포기를 담갔다.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종무원들이 소금에 절여진 배추를 나르면, 신도들이 김장 속을 버무렸다. 봉은사 대중은 김장 8000포기 중 3000포기를 독거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 지역 아동센터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장애 넘어선 불심 한마당 펼쳐져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14회 수화사랑 음악회 개최

수화 표현 음악공연 펼쳐져
재활원 이용자 부모들 동참

불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해 한마음으로 뭉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인 포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17 수화사랑음악회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수화사랑음악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통공연장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로 표현된 음악공연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승무를 주제로 한 장애인불자들의 춤사위도 이어졌다. 연화직업재활원 이용자 및 이용자부모회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찬불가 가수 능인 스님, 은방울자매, 수화사랑합창단 등의 흥겨운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해성 스님은 이날 시각과 청각 장애인 불자들이 불교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점자 불교서적을 전달했다. 또 자비의 쌀을 함께 나누고 장애인 자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보시도 실천했다.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은 “불교와 사회 속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와 관계 없이 모두 공존하고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노덕현 기자

대학생들 함께한 ‘나누는 기쁨’

맑고향기롭게, 대학생 봉사 지원 마무리

‘나누는 기쁨’이 2017년 봉사 지원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 짓고 2018년 새로운 사업을 위해 도약할 예정이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12월 10일 대학생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나누는 기쁨’의 2017년 활동 내역을 발표했다. 이들은 실행 첫 해였던 2017년의 성공을 발판으로 2018년에 더욱 도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7년 ‘나누는 기쁨’에 선정된 대학생 봉사동아리는 ‘나누미’와 ‘미라클’이다. 이화여대, 연세대 학생들이 모여 만든 연합교육동아리 나누미는 대학생들의 재능을 살려 조손, 한부모, 빈곤가정 등 아이들에게 교육봉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총 30여 명의 학생들과 ‘어린이날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등 총 4회의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미라클은 경희대 봉사 동아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안락한 집이 잇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열악한 주거환경서 거주하는 이웃을 위해 집짓기, 집 고치기, 벽화그리기, 가구 만들기 등의 봉사를 진행해왔다.〈사진〉 맑고 향기롭게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미라클’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맑고 향기롭게는 “그동안 고등학생으로 한정해 운영하던 장학금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2017년에 처음으로 대학생들이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학생 봉사활동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렇게 생겨난 ‘나누는 기쁨’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돼 기쁘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2018년 나누는 기쁨은 4월부터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따뜻한 숨결로 자살예방 · 생명존중”

생명나눔, 제3기 의대생 자원활동가 ‘따숨’ 해단식


2015년 생명나눔과 메디키퍼 서울지부가 만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만든 자원활동가 모임인 '따뜻한 숨결(따숨)'의 해단식이 12월 13일 진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2월 13일 본부 회의실서 제3기 대학생 자원 활동가 모임인 ‘따뜻한 숨결(이하 따숨)’의 해단식을 진행했다. 이 날 해단식은 활동사항 보고와 우수활동가 표창, 격려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제3기 따숨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간 자살 예방 캠페인 등을 운영하며 생명존중 문화활동을 전개했다.

따숨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치유를 통한 자살예방 홍보 릴레이 캠페인과 길거리 캠페인, 고등학교 자살예방 치유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템플스테이는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해단식서 우수활동가 표창장을 받은 강민수 따숨 대표(30, 한양대의대 본과 4)는 “자살은 개인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숨의 활동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 더욱 많은 사람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사상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상균 생명나눔 사무총장은 “9개월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생명존중 교육을 펼쳐준 제3기 따숨 활동가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생명나눔은 지역사회 생명존중과 자살예방교육에 귀감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따숨은 2015년 생명나눔과 메디키퍼 서울지부가 만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만든 자원 활동가 모임이다. 박진형기자